

마들지하차도 등 지하차도·보도 내외부『수위 경계선, 높이 숫자』 표기

노원구 소재 마들지하차도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수위 경계선을 안내하고 있으나, 높이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수위를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수위 경계선에 ‘수위경계선, 높이 100CM 숫자 표기’ 하고, 서울시 전체 지하차도 점검 후 내외부 벽면에 수위 경계선(높이) 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노원구 마들지하차도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수위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으나, ‘수위 경계선’이라는 한글 표기도 없고, 정확한 경계선 높이를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운전자가 수위를 알 수 없어 지하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많은 실정으로 개선 필요

※ '25. 8. 13. 12:26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인근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었으며, 당시 지하차도에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빗물에 잠긴 검은색 승용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시동이 꺼져 열리지 않는 창문, 수압 때문에 승용차 문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탈출용 장비 ‘레스큐미’로 창문에 구멍을 내고, 삼단봉으로 유리 조각을 깨고 운전자와 중학생 딸을 무사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음.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마들지하차도 파란색 실선 수위 경계선에 ‘수위 경계선 한글 표기, 높이 숫자 표기’ 후 서울시 전역 지하차도·보도 점검 후 지하차도·보도 내부에 수위(높이) 표시 안내선이 미설치된 지하차도·보도에 『지하차도(보도) 내외부 수위(높이)표시 안내선』 설치
 - 지하차도·보도 내외부에 설치한 수위(높이)표시 안내선을 지하차도·보도 내부 벽면에 30~40m 간격으로 설치

▶ 마들지하차도 수위 경계선(안내선), 내외부 수위(높이) 표시 가안 사진



※ 수위 높이 표시는 50cm 간격으로, 안내선 표시는 30~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들지하차도 내부 파란색 실선 수위 경계선을 따라 구멍봉 설치 검토

□ 기대효과

- 마들지하차도 등 서울시 전역 지하차도·보도 내부 벽면에 일정 간격으로 수위(높이)표시 안내선 설치로 평상시 지하차도·보도 이용하면서 수위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집중폭우시 구민들이 지하차도·보도 진입 자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가능
- 하절기 집중폭우로 지하차도·보도 침수 고립시 구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하는 소방대원, 경찰관들도 수위를 확인하고 내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상습 침수우려 지하차도·보도 구명봉 설치 제안

-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석계역 굴다리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 예상 지하차도·보도 점검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바닥 1m 지점부터 시작해 1m 간격으로 구명봉을 4단으로 양쪽 벽면에 설치

▶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6개 지하차도에 설치한 구명봉 사진 (보도자료)



※ 물이 계속 차오르면 지하차도가 잠기기 전까지 아래쪽 구명봉을 딛고 올라서 위쪽 구명봉을 잡고 외부로 탈출